

## 성폭력 경험이 청소년기 여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왜곡된 성통념의 매개효과

Impact of the Experience of Sexual Abuse on Depression in  
Female Adolescents and Mediation Effect of Distorted Sex-Related Belief

김재엽(Jae Yop Kim)<sup>1)</sup>

최지현(Ji Hyeon Choi)<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larify the impact of sexual abuse experienced by female adolescents on depression and to examine mediation effects of distorted beliefs related to sex.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middle and high school femal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Areas. The 549 responses were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22.2% of the respondents had experienced sexual abuse; the experience of sexual abus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istorted sex-related belief, but not on depression. Distorted sex-related beliefs, however, mediated between the experience of sexual abuse and depression.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for intervention and practical methods for the prevention of adolescent sexual abuse.

**Key Words** : 청소년 성폭력(sexual abuse of adolescents), 성폭력 후유증(sequelae of sexual abuse), 우울(depression), 성통념(sex-related beliefs).

### I. 서론

여성은 전생애에 걸쳐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 즉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Plant, Miller와 Plant(2004)의 연구결과는 16세 이전에 성폭력 경험은 여성의 12.5%, 남성의 11.7%였으나, 16세 이후에는 여성은 거의 변동이 없고 남성은 3.2%로 감소하여 남성에게 비

<sup>1)</sup>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sup>2)</sup>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Ji Hyeon Choi, Appenzeller Hall 102, Yonsei University 262 Seongsann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zium0113@hanmail.net

해 여성은 연령에 상관없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폭력 피해경험은 성폭력에 대한 정의, 대상, 측정도구 등에 따라 연구마다 다양하지만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여성의 20-33%가 아동기 혹은 성인기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rener, McMahon, Warren, & Douglas, 1999; Briere & Elliot, 2003; Dube, Anda, Whitfield, Brown, Felitti, Dong, & Giles, 2005; Finkelhor, Hotaling, Lewis, & Smith, 1990; Leserman, 2005).

국내 연구에서는 김재엽과 이근영(1998)의 서울시 여고생 43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이후 성폭력 경험이 56.8%, 지난 1년간 성폭력 경험이 23.7%로 나타났다. 또한, 권희경과 박경의 연구(2003)에서는 여성 675명 중 49.8%, 권희경과 장재홍의 연구(2003)에서는 중·고교 여학생 526명 중 28.3%가 어떤 형태로든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정규와 김중술(2000)의 연구에서는 일반여성 1,032명 중 성폭력 피해경험자가 86.7%로 나타났다. 즉, 국내 연구 역시 대상 및 성폭력 정의에 따라 성폭력 피해율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0% 이상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발생빈도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전 연령층에서, 또한 성적농담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여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성폭력은 연구자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크게 2가지 측면인 '성적 접촉의 형태'와 '강제의 정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Leserman, 2005). 성폭력을 정의함에 있어 어떤 유형의 성적 접촉을 성폭력으로 규정할 것인가와, 그 행위가 무력

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는가가 주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다.

최근 성폭력의 정의는 성적 접촉 유형에 있어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음란통신 등에서부터 신체접촉, 강간시도와 강간까지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때 모두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의 법적개념이라 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에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미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음행매개, 공연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성적행동 유형을 포괄하고 있다. 조현빈(2006)은 성폭력은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강도강간, 음란전화, 음란 통신 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언어, 신체, 정신적 폭력이라고 하였다. 이미경(2000)은 성폭력을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온라인 성폭력 등 상대방이 원치 않고 거절하는데도 불쾌한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감정이나 신체적 손상,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와 성폭력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으로 보았다. 이처럼 성폭력의 정의에는 직·간접적인 성적 행위 및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이라는 의미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재엽과 이서원(1998)의 정의에 따라 성폭력을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관련 언어나 행동을 일방적으로 표출하여 상대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성적놀림, 성추행, 강간미수와 강간을 포함하여 성폭력을 측정하였다.

한편, 모든 유형의 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데, 성폭력 역시 성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한 다양한 후유증이 존재한다. 일부 연구들은 성폭력 후유증에 관해 발표된 논문들을 검토하여 성폭력 후유증의 분류화를 시도한다(김정규, 1998; Brown & Finkelhor, 1986; Leserman, 2005; Putnam, 2003). 이와 관련하여 Brown과 Finkelhor(1986)는 아동성폭력의 영향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하여 아동성폭력의 영향을 초기효과와 장기효과로 구분하여, 초기효과는 두려움, 불안, 우울, 분노, 적개심, 공격성 등, 장기적 효과로는 우울, 자기파괴적 행동, 불안, 낮은 자존감과 타인 신뢰, 약물남용, 성폭력 재피해 및 성적부적응 등으로 정리하였다. 김정규(1998)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여 성폭력의 심리적 후유증을 정서영역, 인지각역, 신체영역, 대인관계영역, 행동영역, 성적영역의 6개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Putnam(2003)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아동성폭력의 후유증으로 우울증, 경계선 성격장애, 신체화증상, 물질남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폭식증을 지목하였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해 다양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높은 성폭력 피해경험 비율을 고려할 때 성폭력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개입과 치료 및 사회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이 강조된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들은 성폭력 피해의 단·장기적인 후유증에서 공통적으로 우울을 지목하고 있다(Jumper, 1995; Paolucci, Genuis, & Violato, 2001; Pousney & Follette, 1995; Whiffen & Clark, 1997; Zlotnick, Mattia, & Zimmerman, 2001). Putnam(2003)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여러 연구에서 우울이 아동성폭력 후유증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영향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Jumper(1995)는 아동성폭력이 성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아동성폭력이 성인의 우울, 심리적 증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Paolucci, Genuis와 Violato(2001)는 아동성폭력의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을 통해 아동성폭력 경험이 우울, PTSD, 자살 등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국내 연구에서는 박경과 김혜은(2006)이 서울의 여대생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14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동성폭력 후유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아동기에 경험하는 성폭력이 장기적으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고 있어 우울이 성폭력의 위험요인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을 다루거나 그 중에서도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성폭력 피해의 주요 후유증으로 다루고 있는 우울에 관하여 성폭력 피해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성폭력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이후에 장기적인 후유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Finkelhor과 Berliner(1995)의 연구에서는 성폭력을 경험한 모든 아동들이 심각한 피해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그 중 약 40%는 증세가 없거나 미약한 증세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성폭력 피해경험이 모두 심리적 후유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을 비롯한 심리적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 일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Arata, 1999; Branscombe, Wohl, Owen, Allison, & N'gbala, 2003; Coffey, Leitenberg, Henning, Turner, & bennet, 1996; Williams, 1993;

Feiring & Cleland, 2007; Feiring, Taska, & Lewis, 2002). 즉, 성폭력 피해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이후의 심리적 적응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Weiner(1986)의 귀인이론은 성폭력 피해경험이 개인의 성폭력과 관련된 인지 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시한다. 귀인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 사건을 외적 요인에 원인을 돌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그들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인지한다. 정리해보면 성폭력 피해경험 이후 그 상황이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성폭력 피해경험과 심리적 후유증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Coffey 등(1996)의 연구결과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데, 이들은 자기비난이 성폭력 심각도와 성인 적응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결과 더 심각한 정도의 성폭력은 더 많은 자기 비난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다시 더 낮은 성인 적응으로 연관된다고 보고하여(Coffey et al., 1996) 성폭력 피해가 자기비난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타당성을 지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47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Feiring, Taska과 Lewis(2002)의 연구에서는, 성폭력의 심각성과 후유증의 관계는 비관적 귀인을 하는 타입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성폭력에 대한 귀인양식이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밝혔으며, Feiring과 Cleland(2007)는 121명에 대한 추적연구 결과 연령, 성별, 일반사건에 대한 자기비난성향이 통제된 후에도 성폭력에 대한 자기비난귀인이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했다고 보고하였다. Mannarino과 Cohen(1996)은 성폭력을 경험한 성인과 아동 모두 비관적 귀인 양식이 더 심각한 우울증상과 관련 있다고 하였고,

Branscombe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강간피해자의 자기비난이 우울증상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rata(1999)의 연구에서는 자기비난이 성폭력에 뒤따르는 심리적 적응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선행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성폭력 피해경험이 피해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성폭력 피해경험 이후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피해경험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지, 성과 관련된 어떤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지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나 후유증의 회복이 피해자 각각의 성격, 사건의 양태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인식과 해석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폭력 피해자 개인의 인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개입의 초점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 혹은 성통념은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성폭력 또는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및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시각이다. 어떤 사회의 성통념은 사회화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내재될 뿐 아니라,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유교적 가치관에 의한 여성의 정절이 강조되는 한국사회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통념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후유증을 치료하고 적응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이윤희, 1997).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폭력 피해경험은 다른 범죄 피해와 달리 피해자 스스로가 죄책감, 수치감, 자기비난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기비난 혹은 부정적 자기 귀인양식은 ‘성폭력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확장되어 전반적으로 성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인

식을 형성할 수도 있다. 즉,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성폭력피해가 ‘내 탓’이라는 직접적 자기귀인 뿐 아니라 성폭력피해 상황에 대해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왜곡된 성통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성폭력 피해경험이 왜곡된 성통념을 증가시켜 심리적 후유증인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피해 경험이 여자 청소년의 왜곡된 성통념을 발달시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여자 청소년이 경험하는 성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것이 청소년의 성통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성폭력피해 청소년에 대한 개입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여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여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여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왜곡된 성통념은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여학생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활

용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정생활 및 학교 생활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남·여학생 모두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 검토 결과 전생애에 걸쳐 여성의 성폭력 피해 위험이 더 높다는 점과, 성폭력 피해 상황에 대한 이후의 인식과정 및 지각하는 감정에 성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을 여성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주제에 따라 수집된 자료 중 여학생의 설문자료만을 선택함으로써 여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을 북서, 북동, 남서, 남동의 4대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판단표집하여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학교 중 담임교사가 동의한 학급에서 학생들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200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배부된 총 1,200개의 설문 중 1,145부가 수거되었다. 이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여학생 사례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여학생 551 사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549사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측정도구

### 1) 성폭력

성폭력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관련 언어나 행동을 일방적으로 표출하여 상대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하는 바, 이에 성폭력 피해경험으로 성적놀림, 성추행, 강간미수와 강간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성폭력 피해 경험 문항은 지난 1년간 ‘성적으로 놀림(농담 등)을 당한 적이 있다’, ‘추근거리거나 의도적인 신체접촉(의도적으로 부딪히기, 몸 만지기 등)을 당한 적이 있다’, ‘강제로 키스나 포옹, 애무를

당한 적이 있다’, ‘강제로 성교를 당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강제로 성교를 당한 적이 있다’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없음(1점)’, ‘1~2번(2점)’, ‘3~5번(3점)’, ‘6~9번(4점)’, ‘10번 이상(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분석에서는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한다.

## 2) 성통념

본 연구에서는 왜곡된 성통념을 측정하기 위해 총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왜곡된 성통념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강간통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여기서 강간통념이란 강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통념(rape myth)을 말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왜곡된 성통념 척도는 이석재(1999)의 강간통념 수용도 척도와 남미정(2004)의 강간통념 수용도 척도를 합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은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 ‘강제로 성관계 당한 여자는 그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여름에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만 일어난다’,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뜻이다’ 등을 포함한 10문항이며, 각 문항은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에서는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왜곡된 성통념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82$ 로 나타났다.

## 3)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Beck의 우울 척도(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측정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우울 척도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BDI의 문항 중 11개 문항을 추출한 후, 각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우울 척도의 문항에는 ‘슬픔과 우울한 느낌으로 힘들었다’, ‘나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생각했다’, ‘평소보다 많이 울었다’,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값을 합산하여 그 값이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3$ 로 나타났다.

## 4) 통제변수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왜곡된 성통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학년(연령),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형편, 종교유무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여러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김영희·안상미, 2008; 이은하·정혜정, 2002; Robertson & Simon, 1990)을 통제하기 위하여 아버지와의 대화시간,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 3. 자료분석 방법

연구는 자료의 오류검토 작업 및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부호화 과정을 진행하고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각 변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왜곡된 성통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Kenny 등(1998)

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Sobel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Kenny 등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에 따르면 먼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분석도 이 과정을 따라 기술하였다.

### III 결과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년, 학업성적, 가정생활 수준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 311명(56.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학교 3학년 167명(30.4%), 고등학교 2학년 71명(12.9%)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의 경우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학년 (N=549)	중3	167	30.4
	고1	311	56.6
	고2	71	12.9
학업성적 (N=544)	상	104	18.9
	중상	117	21.3
	중	140	25.5
	중하	127	23.1
	하	56	10.2
가정생활 수준 (N=539)	매우 부유한편	5	0.9
	비교적 부유한편	87	16.1
	보통	332	61.6
	비교적 어려운편	100	18.6
	매우 어려운편	15	2.8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40명(2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하’ 127명(23.1%), ‘중상’ 117명(21.3%)으로 조사대상자의 약 75% 정도가 자신들의 성적을 중간정도라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정형편은 ‘보통’이 332명(61.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비교적 어려운 편’ 18.6%, 비교적 부유한 편 16.1%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이 자신들의 가정형편이 대체로 보통에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이 <표 1>과 같다.

#### 2. 청소년 성폭력 피해경험, 왜곡된 성통념, 우울 실태

##### 1)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과 왜곡된 성통념 실태

조사대상인 여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 실태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어떤 방식으로든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전체 조사대상자 546명 중 22.2%인 12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선행연구들에서 성폭력 발생률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하여(권희경·박경, 2003; 권희경·장재홍, 2003; 김정규·김중술, 2000; 김재엽·이근영 1998)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응답자 5명 중 1명은 성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피해 발생률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조사대상자의 왜곡된 성통념 실태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아니다’와 ‘대체로 아니다’의 답변은 그 문항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는 조사대상자가 명확히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은 그 문항의 내용을 수용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왜곡된 성통념을

<표 2>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

(N=546, 명(%))

성폭력 피해유형	경험있음	경험없음
성폭력 피해 전체	121(22.2)	425(77.4)
성적인 놀림	89(16.4)	455(83.6)
추근거리거나 의도적인 신체접촉(의도적으로 부딪히기, 몸 만지기)	61(11.2)	485(88.8)
강제로 키스나 포옹, 애무	23( 4.2)	523(95.8)
강제로 성교하려다 실패	12( 2.2)	534(97.8)
강제성교	8( 0.5)	538(98.5)

나타내는 각 문항에 대해 긍정하는 응답 비율이 19.5%~49.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여자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왜곡된 성통념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자

에 비해 남자는 성충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 등의 문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45% 이상으로, 조사대상자인 여자 청소년들의 절반 정도가 성폭력 피해가 여성에게도 책임이

<표 3> 청소년의 왜곡된 성통념 실태

(N=549, 명(%))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매우 아니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76 (13.9)	93 (17.0)	75 (13.7)	172 (31.4)	132 (24.0)
여자에 비해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	41 (7.5)	107 (19.6)	110 (20.1)	79 (14.5)	209 (38.3)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	44 (8.0)	110 (20.0)	120 (21.9)	146 (26.6)	129 (23.5)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37 (6.7)	81 (14.8)	92 (16.8)	119 (21.7)	220 (40.1)
강제에 의한 성관계(강간)를 줄이기 위해서 매춘부의 존재도 필요하다.	27 (5.0)	67 (12.3)	138 (25.3)	122 (22.4)	191 (35.0)
강제로 성관계(강간)당한 여자는 그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17 (3.1)	46 (8.4)	119 (21.8)	127 (23.3)	236 (43.3)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여름에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만 일어난다.	11 (2.0)	65 (11.8)	107 (19.5)	136 (24.8)	230 (41.9)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하는 뜻이다.	13 (2.4)	56 (10.2)	68 (12.4)	140 (25.5)	271 (49.5)
강간을 보고하는 대부분의 여자는 그 사건 이전에 이미 많은 성관계를 가졌다.	6 (1.1)	32 (5.9)	91 (16.6)	130 (23.8)	288 (52.7)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	7 (1.3)	21 (3.8)	80 (14.6)	124 (22.6)	317 (57.7)



<표 4> 성폭력 피해경험과 왜곡된 성통념의 관계 (N=546)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sig.
왜곡된 성통념 (평균=21.733)	성폭력 피해경험 있음	121	22.876	2.082	.038*
	성폭력 피해경험 없음	425	21.407		

\*p<.05

있다는 인식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인 여자 청소년들 모두가 왜곡된 성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성교육 등을 통해 왜곡된 성통념을 수정하고 성이나 강간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의 성에 관련된 개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남자는 성충동을 통제할 수 없다, 강간을 당한 여자들은 이전에 성관계가 많았다, 어떤 여자들은 성폭력 당하는 것을 즐긴다와 같이 성폭력 피해에 있어 가해자인 남성의 책임을 완화하고,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문제가 있는 시각으로 보는 문항들에서 이를 수용하는 응답이 20%를 상회한다. 이러한 시각은 조사대상인 여자 청소년이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경우 자신에게 비난과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 성폭력 피해의 장기적인 후유증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성폭력 피해경험과 왜곡된 성통념 및 우울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왜곡된 성통념 평균은 21.733점

으로 나타났다. 성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어 집단간 왜곡된 성통념 차이가 있는지 t-test로 분석한 결과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의 왜곡된 성통념 평균은 22.876점, 성폭력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의 왜곡된 성통념 평균은 21.407점으로 나타났다.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왜곡된 성통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우울은 평균 25.767점으로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어 집단간 우울 차이가 있는지 t-test로 분석한 결과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의 우울은 27.760점, 성폭력 피해경험이 없는 집단의 우울 평균은 25.200점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경험이 자기비난의 일환인 왜곡된 성통념 및 우울과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의 Kenny

<표 5> 성폭력피해와 우울의 관계 (N=546)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sig.
우울 (평균=25.767)	성폭력 피해경험 있음	121	27.760	2.947	.003**
	성폭력 피해경험 없음	425	25.200		

\*\*p<.01

&lt;표 6&gt; 성폭력 피해경험이 왜곡된 성통념에 미치는 영향

(N=489)

구분	B(SE)	$\beta$	sig.	VIF	
통제변수	학년	.454(.512)	.041	.376	1.063
	학업성적	-.370(.248)	-.068	.136	1.036
	생활수준	.660(.446)	.068	.140	1.052
	종교 <sup>1)</sup>	.214(.651)	.015	.743	1.052
	부와의 대화시간	.007(.008)	.056	.392	2.158
	모와의 대화시간	-.008(.006)	-.086	.197	2.182
독립변수	성폭력 피해경험	.543(.171)	.141	.002**	1.002
F			2.392*		
R <sup>2</sup>			.034		
Adj. R <sup>2</sup>			.020		

1) 종교 0=없음(reference), 1=있음

\* $p < .05$  \*\* $p < .01$ 

등(1998)의 방법에 따른 회귀분석을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 3. 청소년 성폭력 피해경험이 왜곡된 성통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청소년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 때 왜곡된 성통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우선 Kenny 등(1998)의 방법에 따라 회귀분석을 통해 <표 6>과 같이 독립변수인 청소년 성폭력 피해경험이 매개변수인 왜곡된 성통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표 7>과 같이 성폭력 피해경험과 왜곡된 성통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성폭력 피해경험이 왜곡된 성통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경험은 왜곡된 성통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성폭력 피해경험의 회귀계수  $\beta = .141$ 로 성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왜곡된 성통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모델의 전체 설명력은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3.4%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성폭력 피해경험은 왜곡된 성통념 증가에 유의한 영향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경험과 왜곡된 성통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먼저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 모델설명력은 7.2%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나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학업성적, 생활수준, 종교, 모와의 대화시간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beta = -.118$ ,  $p < .01$ ), 생활수준이 어려울수록( $\beta = -.094$ ,  $p < .05$ ), 종교가 있는 학생이( $\beta = 1.706$ ,  $p < .05$ ), 모와의 대화시간이 적을수록( $\beta = -.015$ ,  $p < .05$ ) 더 우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우울에 부와의 대화시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모와의 대화시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청소년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

<표 7> 성폭력 피해경험과 왜곡된 성통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N=489)

구분	독립변수→종속변수			독립, 매개변수→종속변수			
	B(SE)	β	VIF	B(SE)	β	VIF	
통제변수	학년	-.078(.614)	-.006	1.063	-.138(.611)	-.010	1.064
	학업성적	-.788(.297)	-.118**	1.036	-.739(.297)	-.111*	1.040
	생활수준	-1.114(.535)	-.094*	1.052	-1.200(.534)	-.101*	1.057
	종교 <sup>1)</sup>	1.706(.780)	.099*	1.052	1.678(.776)	.097*	1.053
	부와의 대화시간	-.010(.010)	-.069	2.158	-.011(.010)	-.075	2.162
	모와의 대화시간	-.015(.007)	-.142*	2.182	-.014(.007)	-.133*	2.190
독립변수	성폭력 피해경험	.206(.207)	.044	1.002	.134(.208)	.029	1.022
매개변수	왜곡된 성통념				.132(.052)	.108*	1.035
F		5.317***		5.431***			
R <sup>2</sup>		.072		.083			
Adj. R <sup>2</sup>		.058		.068			
R <sup>2</sup> change				.011***			

<sup>1)</sup> 종교 0=없음(reference), 1=있음  
 \*\*p<.01 \*\*\*p<.001

할 수 있다. 이는 학업성적이나 생활수준 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복지적 개입을 통해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청소년의 가족관계에 대한 개입과 부모교육 등이 청소년의 우울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경험과 왜곡된 성통념이 모두 포함된 상태에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회귀모델의 설명력은 8.3%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매개변수인 왜곡된 성통념이 투입됨으로써 우울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매개변수인 왜곡된 성통념의 회귀계수 β=.108로 p<.05수준에서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왜곡된 성통념을 가질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서는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적, 생활수준, 종교, 모와의 대화시간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왜곡된 성통념의 매개효과 검증

앞서 회귀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은 왜곡된 성통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왜곡된 성통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 성폭력 피해경험과 우울의 관계에 왜곡된 성통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성폭력 피해경험이 왜곡된 성통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Z_{ab}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 a(비표준화계수) : 성폭력피해 경험 → 왜곡된 성통념/ SE<sub>a</sub> : a의 표준오차
- b(비표준화계수) : 왜곡된 성통념 → 우울/SE<sub>b</sub> : b의 표준오차

<표 8> 왜곡된 성통념의 매개효과 Sobel 검증

경로	Z	p-value
성폭력 피해경험 → 왜곡된 성통념 → 우울	1.983	0.047*

\* $p < .05$

Sobel 검증 결과 <표 8>과 같이 성폭력 피해 경험은 왜곡된 성통념을 매개로 우울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폭력 피해경험은 왜곡된 성통념을 증가시키고, 왜곡된 성통념이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경험은 왜곡된 성통념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 IV. 논의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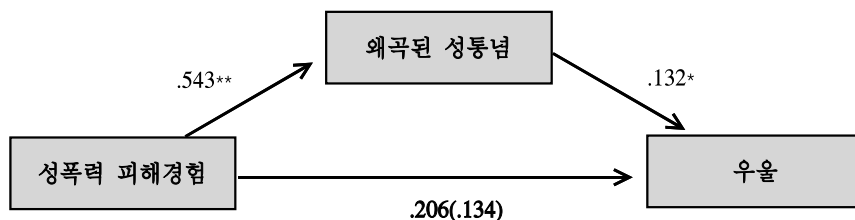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왜곡된 성통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22.2%인 121명이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 이상의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5명 중 1명이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평생 성폭력 피해경험이 30% 이상이라고 조사

된 결과(권희경·박경, 2003; 권희경·장재홍, 2003; 김재엽·이근영 1998; 김정규·김중술, 2000)에 비하여 발생률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조사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결코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연구결과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많은 여자 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폭력 가해를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발견하고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왜곡된 성통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Kenny 등(1998)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에 따라 2단계에 걸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성폭력 피해경험은 왜곡된 성통념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이러한 결과는 Weiner(1986)의 관점 및 아동성폭력을 경험한 성인 여성의 65%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내적 귀인을 한다는 연구결과(Wyatt, Newcomb, & Notgrass, 1991)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Ginzburg, Arnow, Hart, Gardner, Koopman, Classen, Giese-Davis와 Spiegel (2006)은 성폭력 피해경험은 불변하는 것이기



<그림 1> 경로 분석 결과

때문에 임상치료에서 성폭력피해 성인의 적응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개인의 신념이 잠재적인 치료 목표가 된다고 한 바 있다. 즉 성폭력 피해 경험 자체는 이미 발생한 사건이므로 성폭력 상황이나 사건을 치료과정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개입함으로써 성폭력 피해로 인한 영향을 감소시키고 피해자의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폭력 피해경험과 왜곡된 성통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왜곡된 성통념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하지만 성폭력 피해경험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왜곡된 성통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성폭력의 단·장기적 후유증으로 우울이 지목되고 있고(김정규, 1998; Brown & Finkelhor, 1986; Leserman, 2005; Putnam, 2003), Boney-McCoy와 Finkelhor의 연구(1995)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다른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정신적, 행동적 증상이 유의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지속하여 성폭력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경험이 왜곡된 성통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성폭력 피해경험이 왜곡된 성통념을 증가시키고, 왜곡된 성통념이 우울을 증가시키는 경로가 유

의함을 입증하였다. 중다회귀분석과 Sobel test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왜곡된 성통념은 완전매개 효과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 왜곡된 성통념을 수용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에 대한 자기 귀인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우울해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과 적응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Arata, 1999; Coffey et al., 1996; Feiring, Taska & Lewis 2002) 및 성폭력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비난귀인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Branscombe et al, 2003; Mannarino & Cohen, 199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Daignealt, Tourigny와 Hebert(2006)는 성폭력 피해의 영향인 부정적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만큼이나 피해자들의 자기 귀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개입 과정에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자기귀인 하지 않고 성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인지치료의 병행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조사대상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각 권역 내에서 학교의 선택을 판단표집하고 이중 담임교사가 협조한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경험이 왜곡된 성통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설명력은 약 8.3%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에 대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제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이 성폭력 피해경험 뿐 아니라 학교생활, 또래관계, 가족관계 등 청소년 우울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경험과 왜곡된 성통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과 그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모형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함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결과 여자 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경험이 5명 중 1명으로 성폭력 발생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선행연구검토 및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성폭력은 높은 발생율의 문제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은폐되기 쉬우며, 신고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그 후유증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며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로 이 때의 성폭력 경험은 청소년의 심리, 성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청소년은 신체적인 성숙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인성을 형성하는가는 이후 성인시기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해주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성폭력 교육 등을 통해 성폭력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는 사건의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워 은폐되기 쉬우므로,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양산하고, 피해자가 혼자서 고통을 감당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청소

년 상담소,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 등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발견하는 활동과 후유증에 대한 개입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성폭력 피해경험 자체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성폭력 피해경험 후 왜곡된 성통념이 증가하여 우울에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의 초점을 보여준다. 같은 성폭력 피해경험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장기적인 후유증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에 있어 성폭력이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켜 주는 상담이 가장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은 인지행동치료가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감소에 효과적인 개입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Christner, Stewart, & Freeman, 2007, 2007; Kathleen, 2005).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자기 귀인하지 않도록 하고, 성폭력 피해 경험 자체가 자신을 더럽혔다는 인식을 가지 않도록 하는 등 성폭력 피해사건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및 인지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상담 제공이 필요성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기관의 양적 확산과 홍보의 증대, 전문상담원의 교육 및 배치 등 상담 전달체계의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분석결과 조사대상인 여자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통념 수용정도가 20~50%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왜곡된 성통념은 한 사회의 문화가 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즉 성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조사대상인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통념을 수용하게 되는 것은 교육이나 문화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곡된 성통념은 성폭력 가해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피해자를 비난함으

로써 이중의 피해를 입히는 잘못된 인식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와 시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성폭력 예방 및 후유증 감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청소년들의 발달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피상적인 교육이 대부분이며, 학교에 따라 시행횟수 및 질적 수준의 격차가 크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성교육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적발달 및 성의식 형성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대 청소년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하고,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며, 올바른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교육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영희 · 안상미(200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1-30.
- 김정규(1998).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7(1), 331-345.
- 김정규 · 김중술(2000). 아동기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성인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4), 747-769.
- 김재엽 · 이근영(1998). 청소년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경험에 따른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55, 247-272.
- 김재엽 · 이서원(1998).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방향. *한국청소년 연구*, 27, 1-16.
- 권희경 · 박 경(2003). 성폭력 장기후유증 척도의 타당화 연구-중,고,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8(3), 15-33.
- 권희경 · 장재홍(2003).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8(3), 35-47.
- 박 경 · 김혜은(2006). 여대생의 성피해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건강심리학회 : 포스터발표자료*.
- 이미경(2000).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생명연구*, 4, 157-175.
- 이석재(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 :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 이윤희(1997). 성폭력의 사회적 통념과 피해영향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와 국제관계*, 8, 279-293.
- 이은하 · 정혜정(2002).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한국가족복지학회지*, 5(2), 69-86.
- 조현빈(2006).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심리의 이해. *한국범죄심리학회지*, 2(2), 39-59.
- Arata, C. M. (1999). Coping with rape : The role of prior sexual abuse and attributions of blam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 62-78.
- Boney-McCoy, S., & Finkelhor, D. (1995). Psychosocial sequelae of violent victimization in a national youth samp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5), 726-736..
- Branscombe, N. R., Wohl, M. J., Owen, S., Allison, J. A., & N'gbala, A. (2003). Counterfactual thinking, blame assignment, and well-being in rape victim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 265-273.
- Brener, N. D., McMahon, P. M., Warren, C. W., & Douglas, K. A. (1999). Forced sexual intercourse and associated health-risk behavior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2), 252-259.
- Brown, A., & Finkelhor, D. (1986). The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 A review of th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9(1), 66-77.
- Briere, J., & Elliott, D. M. (2003). Prevalence and psychological sequelae of self-reported childhood physical and sexual abuse in a general population sample of men and women. *Child Abuse &*

- Neglect*, 27, 1205-1222.
- Christner, R., W., Stewart, J., L., & Freeman, A. (2007). Cognitive-behavioral group treatment for child sexual abuse. *Handbook of Cognitive-Behavior Group Therapy With Children Adolescents*, 273-292. New York : Routledge.
- Coffey, P., Leitenberg, H., Henning, K., Turner, T., & Bennett, R. T. (1996). Mediator of the long-term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 Perceives stigma, betrayal, powerlessness, and self blame. *Child Abuse and Neglect*, 20(5), 447-455.
- Daigneault, I., Tourigny, M., & Hebert, M. (2006). Self-Attributions of Blame in Sexually Abused, Adolescents : A Mediation Model.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9(1), 153-157.
- Dube, S., Anda, R., Whitfield, C., Brown, D., Felitti, V., Dong, M., & Giles, W. (2005).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hood Sexual Abuse by Gender of Victim.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8(5), 430-438.
- Feiring, C., & Cleland, C. (2007). Childhood sexual abuse and abuse-specific attributions of blame over 6years following discovery. *Child Abuse and Neglect*, 31, 1169-1186.
- Feiring, C., Taska, L., & Lewis, M. (2002). Adjustment following sexual abuse discovery : The role of shame and attributional style. *Developmental Psychology*, 38(1), 79-92.
- Finkelhor, D., & Berliner, L. (1995). Research on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d children :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11), 1408-1423.
- Finkelhor, D., Hotaling, G., Lewis, IA., & Smith, C. (1990). Sexual abuse in a national survey of adult men and women : prevalence,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Child Abuse and Neglect*, 14, 19-28.
- Ginzburg, K., Arnou, B., Hart, S., Gardner, W., Koopman, C., Classen, C. C., Giese-Davis, J., & Spiegel, D. (2006). The abuse-related beliefs questionnaire for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Child Abuse and Neglect*, 30, 929-943.
- Jumper, S., A. (1995).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child sexual abuse to adult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abuse and Neglect*, 19, 793-799.
- Kathleen, M., C. (2005). An Evaluation of cognitive processing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related to childhood sexu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5), 965-97105.
- Kenny, D. A., Kashy, D. A., & Bolger, N. (1998). Data analysis in social psychology.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1*. 4th ed. 233-265. Boston, MA : McGraw-Hill.
- Leserman, J. (2005). Sexual Abuse History : Prevalence, Health Effects, Mediators, and Psychological Treatment. *Psychosomatic Medicine*, 67, 906-915
- Mannarino, A. P., & Cohen, J. A. (1996). Abuse-related attributions and perceptions, general attributions, and locus of control in sexually abused girl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162-180.
- Paolucci, E. O., Genuis, M. L., & Violato, C. (2001). A meta-analysis of the published research on the effects of child sexual abuse. *The Journal of Psychology*, 135(1), 17-36.
- Plant, M., Miller, P., & Plant, M. (2004). Childhood and Adult Sexual Abuse : Relationships With Alcohol and Other Psychoactive Drug Use. *Child Abuse Review*, 13(3), 200-214.
- Polusny, M., & Follette, V. (1995). Long term correlation of child sexual abuse : theory and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4(3), 143-166.
- Putnam, F., W. (2003). Ten-year research update review :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3), 269-278.



- Robertson, J. F., & Simons, R. L. (1990). Family factors,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435-448.
- Weiner, B. (1986). *Spontaneous causal thinking. Psychological Bulletin, 97*(1), 74-84.
- Williams, M., B. (1993). Assessing the Traumatic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What Makes It More Severe?. *Journal of child abuse, 2*(2) 41-59.
- Whiffen, V., & Clark, S. (1997). Does victimization account for sex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Th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2), 185-193.
- Wyatt, G. E., Newcomb, M., & Notgrass, S. M. (1991). Internal and external mediator of women's rape experiences. In a. Wolpert Burgess(Ed.), *Rape and sexual assault*, 32-43, NewYork : Garland.
- Zlotnick, C., Mattia, J., & Zimmerman, M. (2001). Clinical features of survivors of sexual abuse with major depression. *Child Abuse & Neglect, 25*(3), 357-367.

---

2008년 12월 31일 투고, 2009년 3월 3일 수정  
2009년 3월 13일 채택